

## 책으로부터의 도피

어느 동화작가가 쓴 '반성문'

이금이 | 동화작가

일찍이 나는 책읽기보다 더 재미난 놀이를 알지 못했고, 책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보고 싶던 책을 갖고 있는 아이가 부러웠고, 내가 읽지 못한 책을 읽은 아이가 우러러 보였다. 돈 많은 사람보다 책 많은 사람을 부자로 여겼다.

이 세상에는 내가 읽을 책들이 아주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고,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세상에 있는 책에 비하면 아주 조금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다.

나는 그 무렵 서가에 가득 꽂힌 책을 왼쪽 첫째칸 첫권부터 읽고 싶었다. 아 니, 이 세상의 모든 책을 가나다순으로 읽고 싶었던 시절, 나는 책방 주인을 꿈꿨다. 늘 책에 허기져 있었으므로 책방 주인이 되면 배부르게 책 냄새를 맡으며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책방 주인이 되면 한켠에 나무의 숨결이 은은히 배어 나오는 커다란 책상을 들여놓으리라 마음먹었다. 무쇠 난로 위의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 오르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책을 읽으리라. 그 그림 속에는 책을 사러 와 주인의 독서를 방해하는 손님도 없었고, 재고를 파악하고, 주문 하고, 판매하고, 반품하고, 수지를 맞추기 위해 끝탕해야 하는 주인의 수고도 없었다.

책방을 개인 도서관쯤으로 착각했던 나는 책방 주인이 되지 못하고 책 쓰는 것을 주된 일로 삼는 사람이 됐다. 미당 서정주는 자신을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라고 했지만 나는 나를 키운 것의 팔 할이 책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책은 내 인생의 동반자며, 스승이며, 애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런 내게 책의 향연에 참가할 기회가 생겼다. 지난 봄, 책을 낸 출판사에서 이탈리아 볼로냐의 국제아동도서 박람회에 보내준 것이다. 해외여행을 처음 하는 데다 어린이 책하고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에 그리는 박람회였기에 설레임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의 내로라 하는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자랑할 만한 어린이 책들을 한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뒤에 이어지는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의 프로방스 지방 관광 일정도 박람회 참관만큼 가슴 뛰게 하지는 못했다.

긴 비행기 여행 끝에 볼로냐 근교의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드디어 박람회장으로 출발했다. 우리네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골 마을들을 지나 전체가 대학도시라는 볼로냐의 박람회장에 도착했다.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박람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출판되는 어린이 책의 전시장이던 동시에 다양한 인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장이기도 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거의가 어린이 책을 쓰거나, 그리거나, 만들거나, 혹은 팔던가 어떻게든 어린이 책과 관련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생김새나 피부색, 언어가 달라도 친밀감이 느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린이 책 관련자들을 박람회장에서 만나는 일도 커다란 기쁨이었다.

아, 오늘은 정녕 책의 바다에 빠져 마음껏 헤엄치리라. 온 세계의 책을 다 읽지는 못한다치더라도 구경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행운인가. 나는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며 글도 쓰고, 출판사도 운영하는 지인(知人)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공통분모 삼은 대화는 즐겁기만 했다.

부스마다 그 나라만의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책들이 발길을 잡았다. 그런데 책보다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캐릭터를 이용한 산업이었다. 책 속에서 빠져 나온 그 나라 책의 주인공들이 책갈피에서, 포스터에서, 문구류에서 살아 움직이며 아이들과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겐 그럴 만큼 변변한 캐릭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출판사들에 대해 투덜거리다 일차적인 책임은 어쩌면 현실로 걸어나와 아이들과 함께 할 만한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작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지런히 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봤지만, 내가 만들어낸 주인공들 역시 얼마나 아이들이 일상에서도 함께 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눈에 띈 것은 책 모양과 크기의 다양성이었다. 책 모양은 어떻다는 고정 관념을 깨는 과격적인 형태의 책들이 즐비했다. 아이들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독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렇게 만든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책에 대해 품고 있는 엄숙주의를 이야기했다. 책에 절대 낙서해서는 안되고, 접거나 구기거나 찢어서도 안된다에서 시작해, 책을 볼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고,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까지 비약하는, 거의 책에 경도돼 있는 민족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에게 책은 또 다른 장난감이었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장난감 말이다.

책과 함께 하며 박람회장을 누비던 지인과의 관계에 그렇게 쉽게 금이 가리라고 누구도 상상치 않았다. 서울 구경 처음하는 시골 사람처럼 눈과 마음이 다 휘둥그래져 발바닥이 아프게 부스를 돌아다니던 나는 그만 너무도 빨리 책에 멀미가 나고 말았던 것이다. 책 구경이 지겨워진 나는 곧 엄볼보다는 젓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부스마다 사탕이나 포스터, 배지, 책받침, 메모지 같은 것들을 공짜로 줬는데, 책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책 만드는 지인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종이의 질이며, 책의 모양새며, 삽화의 수준이며, 편집 형태 등에 관심을 갖고, 나와 그 관심을 공유하려 했지만 이미 내 마음에서 멀어진 책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 공짜 물

건 수집에 더 열을 올리는 내게 책 만드는 지인은 굵기야, “창피하니 어디 가서 우리 출판사 필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내가 그렇게 책에 관심이 없을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의 평가에 억울해하며, “책 만드는 사람도 아닌 내가 하얀 것은 좋고 까만 것은 글자인 책에 어떻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느냐”고 항변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도 내가 그토록 빨리 책에 싫증낼지 몰랐다. 책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지 않았던가. 책이 너무 좋아서 책방 주인을 꿈꾸지 않았던가. 그래서 결국은 책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던가.

일정에는 박람회 참관이 이틀이었는데 하룻만에 책 멀미를 느낀 나는 둘째 날에는 따로 경비를 내서 가는 베니스 관광단에 끼기로 했다. 지인까지 꺾서 말이다. 지인은 아직 둘러보지 못한 박람회장의 부스들을 아쉬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동행해 줬지만 나에 대한 실망을 감추려 애쓰지 않았다.

그의 실망에 민망해진 나는 칸에 들렀을 때는 해마다 영화제가 열리는 유명한 무슨 센터에 가는 대신 그와 함께 서점엘 갔다. 우리네 동네 책방처럼 아기자기한 서점에서 지인이 책을 구경하는 동안 나는 염서를 고르며 건물 바닥에 찍혀 있는 유명 배우의 손바닥을 보지 못한 애석함을 달랬다. 아버님의 유명하다는 서점에 갔을 때는 차라리 책이 싫었다.

명색이 글쓴다는 내가 어찌서 책보다 유명 배우의 손바닥이 보고 싶었을까. 왜 서점이 내게 더 이상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의문이 갔다. 우리 글로 된 책들이었다 해도 그렇게 빨리 싫증을 느꼈을까? 전시보다는 판매에 더 열을 올리는 우리나라 도서전에 갔을 때도 시장관 같은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기는 했어도 책에 멀미를 느끼지는 않았다.

글자 없는 그림책이 아닌 다음에야, 글자보다 그림이 많은 책이 아닌 다음에야, 내용을 모르면 책이 사람들에게 별다른 울림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나는 그 동안 보잘 것 없는 내용을 책이라는 그럴듯한 그릇에 담아 독자들에게 읽기를 강요하는 횡포를 저지르지는 않았던가.

책이 싫었던, 책으로의 여행을 떠올리는 시간은 내가 자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기도 하다.●